

전북교육청, 도내 주요 대학·학과 지원가능 점수 발표

의예과 일반전형 407~410점 등 예상

한의예·약학과 393~400점, 국어·영어교육과 345~348점 등 전망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학과 지정 과목 폐지 여부 등 꼼꼼하게 살펴야

20일 ‘대입 정시 입시설명회’서 전북권·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주요 대학·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와 정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2과목)영역의 표준점수 합계 기준이며, 대학별 수시 이월 인원, 대학별·영역별 반영 비율, 과목별 가산점, 변환 표준점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제 합격선은 변동될 수 있다.

도내 대학 주요 학과 중 △의예과 일반전형은 407~410점, 지역인재는 402~405점 △치의예과 일반전형은 402~405점, 지역인재 397~400점을 예상했다.

이어 △한의예·약학과는 393~400점, 도내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인 △국어·영어교육과는 345~348점, 자연계열인 △간호학과·수학교육과는 350~356점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의예과는 410~424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정시의 경우 여러 요소가 얹혀 있어 종합적인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만큼 수험생이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 많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의 지정 과목 폐지 여부 △수능 반영 영역과 과목별 반영 비율 △과목에 따

른 가산점 부여 여부 △대학별 변환 표준점수에 따른 유불리 △경쟁률 추이 △전년도 총원율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정시 지원 수험생들에게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2026 대입 정시 입시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청주나래 3층 시청각실에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2026 정시 지원 전략 안내이며, 전북권 및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2026 정시 대비 지원전략 I (서울권), II (전북권, 거점국립대, 교육대) 자료집도 제공한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을 위한 집중 대면 진학 상담도 오는 22일부터 진행한다.

전 주진로진 학센터에서는 오는 22~29일 평일 오후 4~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대면상담 예약 및 자세한 일정은 전북진로진학센터 누리집(<http://www.jbe.go.kr/jiro>)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올해 정시는 영역별 난도와 대학의 반영 방식 차이로 인해 수험생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며 “도교육청 입시설명회와 대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 받고 효과적인 정시 전략을 세워 원하는 진학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도심 속 학술림

활용 숲 체험교육 성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도심 속 학술림을 기반으로 운영한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인 ‘전북대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술림 숲 체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유치원·초·중·고 학생 총 789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의 숲체험교육은 2019년부터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역시 숲 해설, 생태 탐방, 보물찾기, 해먹 체험, 자연물 놀이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환경 보전의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특히 지역민 참여형 운영 방식을 적용해 단순한 야외활동을 넘어 환경 감수성 향상, 협업 경험, 생태문화 확산 등 교육적 효과도 확인했다는 평가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도심 속 학술림을 기반으로 운영한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인 ‘전북대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술림 숲 체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학폭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 15일부터 운영

전북교육청, 사안보고부터 조치 결과까지 전 과정 통합 관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보고부터 조치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우리ON)’을 오는 15일부터 전면 운영한다.

‘우리ON’ 시스템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신속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한 것으로 기존 종이문서 기반의 분절된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사안처리 절차의 전산화 △사안조사 및 조치 과정의 온라인 관리 △각종 공문서의 자동 생성 기능 △단계별 문자 알림 △각종 통계 자료 추출 및 활용의 간소화 등이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우리ON’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담당교원 대상

활용 연수, 2주 간의 시범 운영, 교육지원청별 자체 연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사안처리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우리ON 시스템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속·정확한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나눔·공유로 수학교육 우수사례 확산

전북교육청, ‘2025 전북 수학교육 컨퍼런스’ 내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3일 2층 강당에서 2025년 전북 수학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도내 수학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데이터·통계 기반의 미래 수학교육 방향을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컨퍼런스에는 초등·중등 수학교사와 교육전문직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데이터·통계를 활용한 미래 수학교육 특강 △학교 현장의 수업 나눔 △수학교육 연구회 성과 전시·공유 등이 운영된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이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의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해 학교 현장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장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교

수·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를 전시·체할 형태로 제공해 참여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연수가 되도록 구성했다.

수업나눔 발표 주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 △지터블 시간에 활용하는 수학탐구 △전북의 축제 속으로 △전주한옥마을과 함께하는 중학교 수학전 △과목별 과정중심 수 행평가 사례 △AI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컨퍼런스에서 공유된 우수 자료와 수업 사례를 정리해 현장 보급 및 온라인 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 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학교육 자료관찬연구회 및 교사 연구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국립군산대 김효중 교수

질병관리청장상 수상

국립군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김효중 교수(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센터장)가 지난 10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감염병 매개체 유전자 포상 행사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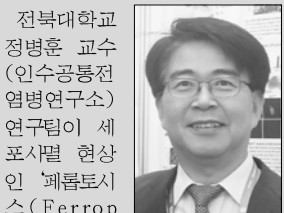
이번 수상은 김 교수가 기후변화 시대에 증가하는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매개체 감시·분석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김 교수는 그동안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및 해외협력사업 자문·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적 감시체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매개체 분석 관련 용역 평가 및 기술 검토를 수행하고, SFIS 매개체 감시체계 DNA 바코드 기반 분류정보 구축,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매개체 기원국가 추적 연구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염병 위험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페롭토시스 연구 성과 ‘주목’

전북대 정병훈 교수 연구팀, 리뷰논문 2편
국제학술지에 발표…재생의학 응용 가능성 제시



정병훈 교수



지예두 박사

시스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했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 및 재생의학 분야에서 페롭토시스가 잠재적 위험성

을 지닌 기전임을 강조하며 향후 세포치료 전략 설계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연구팀의 첫 번째 논문은 Current Obesity Reports(IF 11.0, JCR 상위 2.6%)에 게재된 ‘Hampering Adipose Ferroptosis: A Promising Novel Pathway for Obesity Treatment’이다.

이 논문은 지방조직에서 페롭토시스가 어떻게 유도·조절되는지 또 지질 및 철 대사와 세포막 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최신 연구 성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되며 학술적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논문은 ‘MedComm’(IF 10.8, JCR 상위 7.1%)에 게재된 ‘Ferroptosis in Adipose Tissue: A Double-Edged Sword Between Obesity Therapy and Stem Cell Risk’으로, 지방유래 줄기세포(ADSCs)가 페롭토

에 지닌 기전임을 강조하며 향후 세포치료 전략 설계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두 편의 리뷰논문은 페롭토시스의 기초·응용적 의미와 함께 줄기세포 수준에서의 취약성까지 동시에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비만 치료와 재생의학 등에서 응용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정병훈 교수는 “페롭토시스는 향후 정밀의학, 재생의학, 세포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전략과 응용 플랫폼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창의·개척·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Zoonosis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행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는 최근, 교내 공과대학 첨단강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분산에너지 분과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북자치도 분산에너지 현안 논의

전주대, 분산에너지 분과 제4차 정기회의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최근, 교내 공과대학 첨단강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분산에너지 분과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을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새만금개발공사 양준오 에너지사업처장 등 산·학·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현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회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산하 전기안전연구원 송길목 원장의 세미나로 시작했다. 송 원장은 ‘에너지전환과 전기안전기술’을 주제로 에너지 산업의 중장기 전기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공서비스 강화 방안, 미래 에너지 환경 대비 핵심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분과장인 전주대학

교 전기전자공학과 김은수 교수와 전북특별자치도 배주현 과장이 4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규제 특례 및 필요사항을 공유하며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분산에너지 분과 추진성과와 2026년도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주요 성과로는 △RE100 산업단지 기반 무탄소 에너지 전력 거래 플랫폼 구축 방안 실증연구, △AI 기반 능동형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및 탄소자산화 연계 실증사업’ 등 2건의 신규 과제 수행과 함께, 정책과제 발굴 및 포럼 개최, 신규 참여기관 11곳 추가 발굴 등이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RE100 전용산단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첨단기업의 집적화,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작업치료학과 봉사동아리,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작업치료학과 봉사동아리 ‘해피니스’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지역사회 아동 대상 교육봉사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해피니스’는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으로 선정되며 전문성을 갖춘 봉사 활동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해피니스’는 지역 내 10개 이상의 아동기관에서 100여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이번 인증을 통해 ‘해피니스’는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지역 교육기부 기관으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범로 자리매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